

거기서 지속적인 기쁨을 맛보기란, 혹은 어떤 굳건한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네.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세. 인간은 가지가지 욕구에 의해 온 인류와 연결되어 있기에, 한 인간은 다른 인간들에게 자신의 업을 빚지고 있으며, 물론 남아 있는 자연에도 이바지할 의무가 있는 셈이지. 하지만 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땅을 걸으라 두 발을, 공기를 마시라 양 허파를, 빛을 보라 두 눈을,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요소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여러 신체기관을 주시면서 이러한 감각의 용법을 우리가 뒤바꿀 수 없게끔 하셨으니,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은 오로지 생명의 창조주이신 당신을 위한 것으로 정해두셨다네.

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길 바랐던 사람들에게서도,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하루하루를 지내왔네. 유럽대륙 대부분과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을 여행한 뒤, 온화한 기온과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에 매료되어, 사람이 적게 사는 이 섬에 정착했던 게야. 숲속 나무 밑동에 손수 지은 오두막집 하나, 내 손으로 개간한 작은 밭 하나, 문 앞을 흐르는 강 하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, 살아가는 기쁨도 충분하다네. 나는 이런 삶의 낙에 다가,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몇몇 좋은 책의 즐거움을 보태고 있네. 그런 책들은 내가 떠나온 바로 그 세계를 여전히 나의 행복에 소용되게 하지. 가령 그곳 사